

도이칠란드어본문에서의 어휘론적수단에 대한 문체론적분석

김 수 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외국어교수는 외국어에 대한 지식과 그 활용능력을 키워주는 사업입니다.》

외국어교수에서는 학생들에게 본문에 나오는 단어와 표현, 문법규칙 같은것을 정확히 리해시키고 숙련시켜 그것을 다른 나라 책을 읽거나 회화를 하는데 능숙하게 써먹을수 있도록 하는것이 중요하다.

이 글에서는 어휘론적수단들에 대한 문체론적분석방법을 도이칠란드비판적사실주의문학의 대표적작가 토마스 만의 장편소설 《와이마르의 로테》(1952)에서 발췌한 본문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보여주려고 한다.

례: Der Kellner des Gasthofes “Zum Elephanten” in Weimar, ein gebildeter Mann, hatte an einem fast noch sommerlichen Tage ziemlich tief im September des Jahres 1816 ein bewegendes, freudig verwirrendes Erlebnis.

... ..

Dann zog er an der Schnur sein Horn vom Rücken und begann zum Wohlgefallen einiger Buben und Frühpassanten, die der Ankunft beiwohnten, sehr empfindsam zu blasen.

우의 실례에 대한 문체론적분석에서는 우선 본문의 내용을 간단히 개괄한 다음에 작가가 리용한 어휘적수단들에 주의를 돌려 각이한 개념적단어들과 표현들을 배열하고 그것들의 문체적가치를 밝힌다.

단어들과 표현들을 일정한 어휘부류들로 배열하는것은 대부분의 어휘소들이 가지고있는 다의성으로 하여 문맥안에서 실현된 어휘의미론적인 개별적변종들 즉 단

어가 가지고있는 현실적의미에 관계된다. 이때 단어가 가지고있는 매 본질적인 의미들을 찾아볼수 있는 사전을 리용하는것이 필수적이다.

우의 본문에 대한 문체론적분석에서는 또한 의미개념적인 관점에서 문체요소들을 그 주제적류사성에 따라 체계화할수 있다.

실례로 사람과 행동, 그 특징에 관련되는가 아니면 장소나 시간에 관련되는가 하는 포괄적인 관점에서 주제적부류들을 갈라본다.

우의 본문에서는 민족적이며 사회적인 색채를 나타내는 지리적고유명사들인 와이마르와 고타, 인물들의 이름들인 마거와 클레아르첸에 대하여 연구분석한다. 《코끼리》라는 려관의 명칭도 이러한 려관속에 있다.

고타와 와이마르는 일반적으로 튀링엔 지방의 도시들로 알려져있다. 와이마르에 한번 다녀왔거나 이 도시와 구체적인 려관이 있는 사람이라면 유명한 《코끼리》려관을 알고있다. 따라서 독자들은 소설의 첫 부분에서 사건이 벌어지는 장소에 대한 명백한 표상을 가지게 된다.

본문에 등장한 인물들중에서 마거는 접대원인 동시에 교양있는 사람으로 소개되였다. 그는 후에 외교관다운 성격의 소유자로 나타난다. 도착한 세명의 인물들을 처음에는 Frauenzimmer(부인방: 녀성을 의미함)이라고 하였다가 후에는 동의어인 Damen(녀성)이라고 하였다. 동의어인 Damen의 사용은 고풍적으로 Frauenzimmer이라는 개념으로 쓰였다는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오늘날 일상생활에서 쓰일 때 보통 가지게 되는 경멸의 뜻빛갈을 가지고있지 않다. 그리고 Dame라는 단어가 가지는 본

문적동의성은 여기서 아무런 가치평가가 없는 성별이 여자인 사람을 가리키는 개념이다. 이 개념은 시간적인 색채를 함께 나타내는데도 매우 적중하다. 소설 《와이마르의 로테》에서 나오는 중심인물인 피테는 Frauenzimmer라는 단어를 귀부인들을 가리키는 의미에서 자주 썼다.

세명의 녀성들중에서 두명은 Mutter(어머니)와 Tochter(딸)로 소개되었다. 이 두 단어는 도이칠란드어의 기본어휘에 속하는 요소들로서 기능문체상으로도 같은 어휘부류에 속한다. 그것은 이 두 단어들이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쉽고 일상적으로 쓰이며 역사적으로 안정되고 파생어와 합성어의 기초로 되기때문이다.

우의 실례에 대한 문체론적분석에서는 또한 벌어진 사건과 이 사건의 개별적단계들을 나타내는 개념들에 주목을 돌린다.

마거는 Erlebnis(체험)을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체험은 이 인물의 성격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하여 다음의 문장에서 Vorfall이라는 단어로 재차 씌여진다. Erlebnis라는 단어가 한 인물의 견해(그 누군가가 체험한 사건과 그 사람이 이 사건에서 강한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도 포함하고있는 반면에 Vorfall이라는 단어는 보다 객관적인 것으로서 주관적영향의 의미소들을 포괄하지 않는다는것이다. Vorfall이라는 단어도 벌어진 사건들이 가지고있는 특이한 측면을 암시하지는 않는다. 두번째 단락의 마감에 사건의 전과정이 Ankunft(도착)로 종합되는 경우 이러한 명명이 언제나 가장 일반적인 성격을 띤다는것을 알수 있다.

기타 다른 모든 행동들과 과정들 즉 마거가 얼마동안 꿈을 꾸는것으로 생각하였다는것과 세 부인이 도착하였다는것, 하인들이 두명의 부인들이 포장도로에 내리는것을 도와주었다는것, 클레아르셴이 마부와 작별하는 과정, 마부가 클레아르셴을 측면에서 바라보다가 뒤편에 있는 빨나

팔을 당겨 붙기 시작하는 과정들이 모두 동사로 묘사되었다. 그리고 세 부인의 도착에 대한 모든 세부들이 정확하게 재현되었다. 독자들의 주의는 클레아르셴이 단순히 마차의 좌석에서 《떨어지다》(hinabstieg)나 《내리뛰다》(hinuntersprang)가 아니라 《내려서다》(sich hinunterfand)는 행동에 돌려진다. 클레아르셴의 행동이 가지는 섬세성은 sich hinunterfand라는 동사에 의하여 생동하게 묘사된다.

토마스 만의 문체는 인물들과 대상들, 사건들, 상태들이 가지고있는 특성들과 사람들의 행동의 특성에서 나타나는 현저한 폭과 섬세성으로 특징지어진다. 이것은 사건의 본질을 특징짓는 형용사들에 주목을 돌리며 형용사와 부사들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단어결합들과 전치사적속어들을 규정어적이고 부사적인 기능에 포함시킨것으로 표현되었다. 마거의 체험을 bewegend(감동적인), freudig wirrend(기쁨에 겨워)로 표현한것이 대표적이다. 활동적인 의미를 가진 이 두개의 현재분사들은 단어 Erlebnis를 의인화하여 사건이 마거에게 주는 지속적인 영향을 암시해준다. 마거를 ein gebildeter Mann(교양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하였는데 이것은 도착하는 녀성들에 대한 그의 앞으로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준다. 녀성들이 도착한 날을 ziemlich tief im September(9월이지만 상당히 무더운)라고 해주는 동시에 fast noch sommerlich(아직 거의나 여름날씨와 같은)라고도 묘사하였다. 그밖에 Ziemlich와 fast와 같이 형용사의 종류와 정도를 특징짓는 형용사들을 구사하였는데 이것은 신중하면서도 공부정을 갈라보고 정확성을 지향하는 토마스 만의 이야기문체에서 특징적이다.

본문에서 표현된 vor dem renommierten Hause am Markte(시장주변에 있는 이름있는 호텔앞에)라는 문구에서 분사 Renommiert는 호텔의 명성과 명망, 가치를 가리

키는데 이때 류사한 단어들인 renom-mieren과 Renommist에 어울리는 거만과 허례허식적인 여운의 가치를 평가하는 문체적빛깔은 가지고있지 않다. 이 본문에는 마부가 시너를 조롱에 찬(in einer Art spöttischer Versonnenheit) 눈길로 바라보다가 조심히 빨나팔을 불기 시작하는 행동이 서술되는데 여기에서 주목되는것은 마부의 눈표정을 서로 다르게 특징지은것이다.

본문에 쓰인 동사 beginnen은 《현대도이칠란드어사전》에서는 일반어휘층의 부류에 배렬되어있으며 일반적으로 동사 anfangen과 beginnen은 완전한 동의어로 불리운다. 실지 이 동사들은 대부분 교차되어 쓰일수 있다. 실례로 es fängt an zu regnen, beginnt zu regnen를 들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경우에는 파악할수 없는 뜻빛갈상의 차이를 보다 강하게 드러내어 호상 교차되어 쓰일수 없게 만드는 문맥도 있다.

현대언어에서는 보다 오래된 단어인 beginnen을 보다 늦게 나온 일상단어인 anfangen보다 더 세련된 단어처럼 쓰고있다.

단어결합인 freudig verwirrend는 고급한 문체적빛갈의 경향을 가지고있고 개별적고어들인 ordinäre Post, Frauenzimmer, renommirtes Haus, Schwager은 일반적인 언어문체와 구별되며 이 어휘적요소들은 이야기가 진행되는 시기를 특징짓는데 리용된다.

개별적고어들인 ordinäre Post, Frauenzimmer, Schwager과 력사어들인 Zofe, Hausknecht, 낡은 단어인 renommirt를 력사적관점에서 분석할수 있다. 여기에서 개별적고어들에 대해 언급하게 되는것은 이것들이 어휘적단위로서 언어안에 존재하며 때로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리용되는 단어들이기때문이다. 이 본문에서는 이것들이 오늘날에 통용되는 일반적인 의미로 쓰이지 않고 가치를 떨구는 문체적색

채가 없거나(Frauenzimmer, ordinär) 현시점과 다르게 쓰이는(Schwager를 직업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의미로 쓰인다. 이 부류의 어휘적수단들은 우의 본문에서 력사적색채를 나타내는데 쓰인다. 이 표현들로 작가는 독자들이 사건이 벌어진 시기를 눈앞에 명확히 그려볼수 있게 한다. 그리고 이 소설에서 즐겨쓴 피레시기의 일부 단어들도 익살적인 효과를 가지고있다.

외래어의 측면에서 보면 이 본문에는 4개의 외래어 ordinär(e Post), renommirt (es Haus), Dialekt, (Früh-)passanten가 있는데 첫 두개의 외래어들은 이미 력사적관점에서 취급되였다. Frühpassanten이 현실에서 있게 되는 현상들을 명백히 그리고 언어경제적으로 표현하는 외래어로 간주되는것과 마찬가지로 Dialekt는 언어학에서 국제공용어로 간주된다. Gerade Frühpassante는 의미가 비슷한 표현들인 Spaziergänger am Morgen Leute나 die morgens vorüberkamen에 비해볼 때 함축성과 경제성으로 특징지어진다.

단어조성적측면에서 9개의 명사적합성어들에 대한 분석을 진행한 결과 이 명사적합성어들에서 생겨나는 의미는 구성단어들이 가지고있는 의미들의 합과 전혀 같지 않다. 실례로 Frauenzimmer에서는 방이라는 개념이 환유적으로 그 방에서 사는 녀주인에게로 전의되었으며 Kammerkatze에서는 은유에 의하여 전의되였다. Gasthof, Hausknecht, Willkommensbücklinge, Trittbrett와 같은 합성어들에서는 규정어가 기본어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표현하는데 쓰이였고 Eingangsbogen에서는 이 단어를 구성하는 첫번째 단어가 장소를 나타내며 Frühpassanten에는 시간적인 규정관계가 존재한다. 이 규정합성어(Frühpassanten는 제외)들도 이미 고정된 명사들로 되어버렸으며 의미변화가 없이 해당한 부류의 규정어들에 의하여 대신 쓰일수는 없다.

Wohlgefallen는 규정어들이 기본어에 의하여 표현되는 감정의 고조를 표현하는데 쓰인다.

이 합성어들과 대조를 이루는것은 8개의 추상명사들로서 이것들은 각이한 단어 조성형식에 따라 동사와 형용사에서 파생되어나온다. Erlebnis, Verhältnis, Ver-sonnenheit, Ankunft, Vorfall, Windungen, Raffungen, Zierlichkeit는 복수형으로 쓰임으로써 《Kammerkatze》가 진행하는 개별적인 운동을 나타낸다.

본문에서는 bewegend, verwirrend, lächelnd, Reisende와 같은 력동적인 의미를 가진 형용사와 명사들, 많은 현재완료형들과 뒤불이파생형용사들을 리용하여 행동하면서도 직관적인 묘사를 하였다. 부분적으로 명사화되고있는 뒤불이 -lich를 가진 형용사들(sommerlich, ziemlich, unnatürliches, sonderlich), 뒤불이 -ig를 가진 형용사들(freudig, auswärtig)과 뒤불이 -isch를 가진 형용사들(spöttisch), 뒤불이 -sam을 가진 형용사들(empfindsam), 과거완료형 gebildet는 피규정어들을 구체화하고 인물들과 사실, 사건들을 상세하게 특징지으면서 소설에 나오는 인물들이 가지

고있는 감정을 적중하게 표현하였다.

앞불이단어들(beurteilen, verabschieden)과 (대부분 일시적인)조사적합성어(eintrffen, anmerken, zusehen, sich unterhalten, sich hinunterfinden, beiwohnen)들은 이 사건에서 나오는 인물들의 활동을 정확히 표현해주며 문장론적으로 보충을 필요로 하는 동사들에 관해서는 사건묘사에 기타 인물들과 해당 이야기줄거리들을 포함시킬수 있게 한다.

본문에는 부사적기능을 하는 전치사적성구를 사용하였는데 여기서 주목되는것은 그 성구의 본래의 고유한 의미가 삽입어로 쓰이면서 새롭게 구체화된것이다.

이처럼 본문에서는 세명의 녀성들이 1816년 9월의 어느날 일반마차를 타고 와이마르에 있는 《코끼리》려관앞에 도착한 일을 매우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 비교적 많은 수의 고어들을 리용하여 토마스 만은 괴테시기의 시대상을 재현하였다.

우리는 도이칠란드어본문에 대한 문체론적분석방법을 더욱 심화시켜 학생들이 각이한 어휘적수단들이 나타내는 표현적색채를 잘 알고 언어실천에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데 이바지해나가야 할것이다.